

온통 숲 프로젝트로 열섬현상 줄인다

전주시, '가족나무' 돌보는 시민참여 공원관리 사업 추진

전주시가 도심 속 열섬현상 감소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가꾸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도립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243개 공원에 가족나무를 정해 스스로 가꾸는 '시민참여 공원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공원 등에 식재된 나무에 가족이름을

달고 시민들 스스로 나무를 돌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도시공원 주변에 위치한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기업 등은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원 내 나무를 스스로 가꾸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 시민들의 거주지 주변과 주요 거리 등 도심 생활권 곳곳에 각종 숲을 조성하는 '전주 온

통 숲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자투리땅 등에 도심 동네 숲 및 습터를 만들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시정의 핵심가치인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도심동네숲 △벽면녹화 △옥상녹화 △녹색예술키리 나눔숲 △복지시설 나눔숲 △송천그린웨이 조성 △전통한식정자 설치 등으로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전주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진출입로에 CCTV 설치

전주시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의 주요관문인 전주역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CCTV를 이용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전주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전주역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하고 다음달 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역은 지난해 4월 KTX가 개통된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가족과 지인들이 전주역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하면서 차량의 소통방해 및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주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 지난 6월 중 20일간의 행정예고 마치고 본 공사에 돌입해 최근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계도기간 및 시험가동을 통해 시스템을 최종 점검한 후 9월 5일 오전 7시부터 단속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가동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김영재 기자

'폐암' 조기 발견시 생존율 70% 넘어

말기 발견하면 3%

폐암환자는 늘고 있지만 초기증상이 없어 생존율을 높이려면 조기진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폐암 환자는 2004년 1만6355명에서 2014년 2만3177명으로 10년 만에 약 29% 증가했다. 과거에는 폐암이 흡연자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간접흡연자의 증가와 결핵, 석면폐증, 규폐증,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 다른 폐 질환으로 인한 폐암 발견이 증가했다.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거나

기침, 객담(가래) 등 감기와 유사해 일반인들은 폐암을 쉽게 의심하지 못한다. 폐암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혈담, 체중감소 등이다. 검사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폐암 5년 생존율은 70%를 초과하지만 말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전문의들은 폐암의 조기 발견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단 폐암이 의심되면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한다. 하지만 폐암 여부를 가리는 정확도가 80%수준이기 때문에 확진을 위해서는 초음파 기관지내시경(BBUS)이나 경피적 폐생검과 같은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뉴스시스



“소의 아동위해 써주세요” 도서출판 아랑 이병수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청을 방문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의 계층 아동들을 위한 아동도서 1만권(5,000만원 상당)을 전주시에 기증했다.

전주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지혜의 반찬' 도서 지원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송연준)가 지역아동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지혜의 반찬'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전주시는 지혜의 반찬 사업 후원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아동 희망도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도서지원 등 지혜의 반찬 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혜의 반찬' 사업은 전주시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청소년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에서 추천한 아동들의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45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기로 했다. 시는 지혜의 반찬 지원대상 아동을 선정·추천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 6기 들어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에 이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지혜의 반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혜의 반찬은 엄마의 밥상을 맞보는 아동들은 물론,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과 저소득 소외계층 650여명에게 지원돼, 대상자들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김영재 기자

친동생 흥기로 찌른 40대 집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9일 친동생을 흥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저녁 9시20분경 전주시 자택에서 동생(39)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이 몸싸움을 하며 대들자 이에 격분해 흥기로 배 부위를 찌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동생을 흥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말다툼 끝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재 기자

119구급차 들이받고 욕설 50대 검찰 송치

긴급출동하는 119구급차를 들이받고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소방서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긴급출동 중인 119구급차를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소방기법법 위반 등)로 김모(5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저녁 9시30분경 전북 전주시 전동의 한 도로에서 긴급출동하는 119구급차 앞에서 수차례 제동을 걸고 차에서 내려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로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했으며, 김씨는 긴급 출동을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안내방송에 기분이 상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특정 감사자료 제출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19일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장 김 교육감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과 교원과 교육행정직원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법질서를 크게 훼손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헌법 공부 좀 하고 우리나라 법질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민형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